

## 북한 음악 연구 성과 분석

천현식(중앙대학교)

북한 음악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시기는 제1기는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까지, 제2기는 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 이후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까지, 제3기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했다.

제1기는 1948년부터지만 분단으로 인한 냉전의 영향으로 북한연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978년이 되어서야 북한 음악 연구가 확인된다. 이후 민주화와 함께 진행된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 이후 제2기가 출발하면서 민간의 자율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2기부터가 북한 음악 연구의 실질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부터는 북한 음악에 대한 소개와 해설이 주를 이뤘다. 제3기부터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계와 함께 북한 음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민간과 정부 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었고 연구 주제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심화되어 학술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분야별 연구 성과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음악, 주체음악을 북한 정치사상의 관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북한 음악론 글이 많이 보인다. 다음으로 전통음악 분야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북한 음악에 관한 주제와 내용이 심화·확대되면서 개별 작품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는 것은 북한 음악 연구가 본격화되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음악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작품의 분석이 음악학의 관점에서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음악 연구가 북한 음악 자체의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남한의 음악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비판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지 남한음악 연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민족음악’, ‘통일음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주제어: 기존 연구, 민족유산, 민족음악, 배합관현악, 북한 음악, 사상성, 악기개량, 예술성, 음악학, 작품 분석, 전통음악, 주제발성, 주제사상, 주제음악, 통일음악

## 1. 들어가는 글

북한 음악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실정이다. 이에 맞춰 북한 음악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북한 음악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2개의 글이 보인다. 먼저 2006년 천현식의 “노동은의 북한 음악 연구”가 있다.<sup>1)</sup> 음악학자 노동은은 1980년대 후반 북한 음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첫 세대이면서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로 현재까지도 그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분단 이후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와 1998년 윤이상통일음악회에 참여해 학술 발표를 한 유일한 음악학자라는 점에서 그 연구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기

1) 천현식, “노동은의 북한 음악 연구,” 『노동은과 민족음악, 그 길 함께 걷다』(서울: 민속원, 2006), 148~173쪽.

때문에 노동은의 북한 음악 연구를 시기별·분야별로 살펴본 이 글은 북한 음악 연구사의 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글이다. 하지만 이 글은 북한 음악 연구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학자 노동은의 연구 중에서 북한 음악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를 정리 분석한 글이다. 그런 점에서는 전체 북한 음악 연구 성과 분석 글로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박은옥이 2009년 발표한 “중국과 한국에서의 북한 음악 연구”가 있다.<sup>2)</sup> 중국에서 학사까지 마친 중국 국적의 음악학자 박은옥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 개인의 학문 배경의 특성을 살펴 중국과 남한의 북한 음악 연구에 대해 정리·분석했다. 이 논문은 남한의 북한 음악 연구 전체를 분석한 유일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남한의 연구에서 시기별 특성을 연구하지 않았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극 분야, 공연예술, 무용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글은 남한의 북한 음악 연구 자체만을 독자화해서 시기별·분야별로 나눠 살펴보려고 한다. 시기를 보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 194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고, 공간으로는 남한의 연구에 해당된다. 물론 북한 음악 연구가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는 기간으로 치면 60년이 넘고 관련 자료들도 매우 많은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초점을 연구 성과에 대한 충실한 소개와 정리 작업에 두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이 글이 갖는 가장 큰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 해당 성과의 내적 완성도와 평가보다는 주로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를 연구사의 흐름 속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했듯이 시간적 연구 범

---

2) 박은옥, “중국과 한국에서의 북한 음악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5호 (2009), 19~51쪽.

위가 길고 관련 글들도 음악만을 소재로 한 것들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연구 범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언급해두려고 한다. 이 글은 남한 음악학자들의 현대 북한 음악에 관한 학술 성격의 글을 대상으로 한다. 음악학자들이 북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직후와 이후 상당 기간에 기존의 북한 관련 학자나 비전문가들이 북한예술과 함께 북한 음악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 물론 학술 성격의 글이 아니었다. 따라서 첫째, 음악학자의 글이 아닌 연구는 제외한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북한 음악을 소개하는 성격의 글과 북한 음악 관람 후의 평론이나 후기, 그리고 남북 음악교류에 관련된 정책 성격의 글은 제외한다. 둘째, 남한 음악학자들의 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재중동포나 재일동포와 같이 해외에서 연구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나 해외 학자들의 연구는 제외한다는 점을 말한다. 셋째, ‘현대 북한 음악’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분단 이전의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는 제외한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전통에 기반을 두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북한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현대화된 북한 음악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만의 고유한 특성을 연구한 글이 대상이다. 넷째, 연구는 단행본, 일반논문,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 단행본의 경우는 북한 음악을 주제로 단독 발행된 책만을 대상으로 했다. 단행본에는 정책연구 보고서 성격의 단행본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음악을 하나의 목차로 하는 문학 예술에 관련된 책들도 상당수 있으나 그 경우의 수가 많기도 하고 음악만의 독립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 목적에 따라 제외했다. 일반논문의 경우는 단순 검색어만으로도 200여 개가 넘는 논문이 확인되나 음악학자와 전문학술지 위주로 선정했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박사학

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했다. 석사학위논문의 경우도 단순 검색어만으로 200여 건이 검색되어 너무 양이 많고 그 내용도 상당수가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에 관련된 성과들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러한 연구 범위와 원칙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정해 분석했으며 그 수는 대략 70여 건에 해당한다. 이 글은 이 70여 건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따라서 놓친 성과들이 있을 텐데,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은 필자의 한계이자 잘못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구를 포함한 분석을 기대한다. 본론에서는 먼저 북한 음악 연구의 역사를 시기 구분에 따라 나누어 특징을 서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분야별로 그 특징을 서술하겠다. 끝으로 북한 음악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대해서 전망하고 제언할 것이다.

## 2. 북한 음악 연구사

### 1) 시기 구분

북한 음악 연구사는 남북 대치라는 특성상 한반도의 역사, 정치 상황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 정치 상황과 연결해 시기 구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북한 음악 자체의 연구 경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표 1>은 북한 음악 연구 역사를 분기점에 따라서 나누는 시기 구분 표이다.

첫째 시기인 제1기는 1948년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解禁) 조치 시기이다. 이

<표 1> 북한 음악 연구의 시기 구분

구분	시기	사건	특징
제1기	1948 ~ 1988.10.26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	· 관제 연구 · 이념 대립
제2기	1988.10.27 ~ 2000	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2000년 남북정상회담	· 민간 자율연구 · 북한 음악 일반 소개
제3기	2001~ 현재	2000년 남북정상회담~ 현재	· 북한 음악 전문학자 · 개별 작품 연구 심화

때는 분단 이후 남북한이 다른 정치체제를 구성한 이후이며, 따라서 남북한의 음악도 서로 다른 별개의 음악으로 구성되어왔다. 따라서 초기에는 서로 다른 음악이라기보다는 같은 음악의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북한 음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것은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음악학과 더불어 학계의 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 기간이 민주화 이전 독재 정권 시절로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 특히 북한에 대한 연구와 자료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북한 음악 연구가 제대로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 음악 성과가 처음 등장한다. 장사훈·나인용·한상우가 과제 보고서로 연구 집필하고 정부에서 1978년에 발행한 『북한의 음악』이 그것이다.<sup>3)</sup>

둘째 시기인 제2기는 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 이후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시기까지이다. 이때는 북한 음악 연구가 민간의 음악학자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시작된 때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연구로는 첫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위 설명처

3) 장사훈·나인용·한상우, 『북한의 음악』(국토통일원, 1978).

럼 1988년 10월 27일 정부의 월·납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부터 시작한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7월 19일 문학 분야 월·납북 작가들의 해금에 이어 납북 또는 월북한 음악인, 미술인들의 작품 공연, 음반제작, 전시출판 등의 일반 공개를 허용하는 해금 조치를 10월 27일 단행했다. 단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순수작품에 한해서였다.<sup>4)</sup> 이 해금 조치는 단서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정부 수립 이후의 북한 음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글의 연구 범위에서 말한 ‘현대 북한 음악’이라는 제한 사항과는 맞지 않다. 하지만 이 조치 이후 시작된 월북 음악가들에 대한 연구는 북한 정부 수립 이전에 머물지 않고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북한 정부 수립 이후 해당 음악가들의 활동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북한 음악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해금 조치는 남한의 민주화와 함께 음악인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1988년 10월 6일 ‘음악학연구회’(회장 이강숙)는 예음홀에서 월례발표회를 열고 김순남과 이진우에 대한 미적·역사적 평가를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시도했다. 여기서 이진용은 “김순남·이진우의 가곡에 대한 양식적 검토”를,<sup>5)</sup> 노동은은 “김순남·이진우의 음악사적 위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술 발표 말고도 김순남 가곡집 『산유화』 전곡과 이진우의 『금잔디』 전곡을 이일령 외 4명이 불렀다.<sup>6)</sup> 그리고

4) 관련 사항과 해금 명단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반신불수 민족예술사 복원,”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28일, 7면; 『경향신문』, 1988년 10월 27일, 2, 4면.

5) 당시 이진용의 발표회 논문은 1988년 12월 27일 『낭만음악』 창간호에 실렸다. 이진용, “김순남·이진우의 가곡에 대한 양식적 검토,” 『낭만음악』, 통권1호 (1988), 6~36쪽.

6) 노동은, 『김순남 그 삶과 예술』(서울: 낭만음악사, 1992), 433쪽.

해금 조치 발표 이후인 1988년 11월 28일에는 월북 작곡가들의 가곡을 발표한 ‘해금가곡제’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로써 김순남, 이진우, 안기영의 가곡이 40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다.<sup>7)</sup> 그리고 월북 음악가의 북한 정부 수립 이전 작품 연구가 아닌 ‘현대 북한 음악’ 연구로 제2기에 처음 발표된 연구는 1989년 6월 10일 발행된 『실천문학』 1989년 여름호(통권 14호)에 실린 노동은의 “북한의 음악문화”를 들 수 있다.<sup>8)</sup>

셋째 시기인 제3기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는 북한 음악 연구가 본격화한 때이자 음악학자로서 북한 음악 분야를 다룬 것이 아닌 북한 음악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음 세대의 북한 음악 연구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이다. 이전 시기인 제2기까지는 민주화 이후 실질적으로 시작된 북한 음악의 연구와 관심이 일반인까지 대중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북한 음악 관련자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의 첫 남북정상회담과 그것을 기념하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공연(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2000년 5월 26~28일),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방문공연(서울 KBS 홀·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0년 8월 20~22일) 이후에는 남북화해의 흐름과 함께 북한 음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전에 비해 늘어났고 학문 연구도 본격화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함께 정부에서도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통제를 줄였고 2003년부터는 특수 자료 인가증 제도도 사라지게 되면서 연구의 조건은 더욱 좋아졌다. 이렇게 북한 음악 연구가 본격화한 제3기의 처음을 대표하는 연구는 2001년 4월 30

7) 황성호, “작곡부문: 미증유의 결실이 주는 의미,” 『문예연감: 1988년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134쪽.

8) 노동은, “북한의 음악문화,” 『실천문학』, 통권 14호(1990), 130~150쪽.

일에 발행된 단행본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를 들 수 있다.<sup>9)</sup>

북한 음악 연구의 시기 구분은 위와 같으며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대표하는 연구를 단행본과 박사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시기별 특징

### (1) 제1기: 1948~1988

북한 음악 연구에서 처음 확인되는 음악학자의 학술 성격의 성과로 제1기에서 유일한 것이 바로 다음 책이다.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의 기획으로 장사훈·나인용·한상우가 집필하고 ‘남북관계-통일정책’ 과제 보고서의 하나로 1978년 12월에 발행된 『북한의 음악』(총서사항: 국통정 78-12-1505)이 그것이다. 이 단행본에서 국악학자 장사훈은 “제1부 북한의 국악”, 작곡가 나인용은 “제2부 북한의 관현악곡 편곡의 문제점”, 음악평론가 한상우는 “제3부 북한의 가창곡 분석”을 썼다. “제1부 북한의 국악”에서는 국악학의 관점에서 1960년대의 판소리·관악기·현악기와 함께 북한의 민족음악관을 서술한다. 그리고 국악이론으로 주체적 발성법과 학술활동도 정리했다. “제2부 북한의 관현악곡 편곡의 문제점”에서는 관현악곡 3곡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와 <내 고향의 정든 집>, <문경고개>를 제재로 해서 형식과 선율, 화음, 리듬, 관현악법을 분석했다. “제3부 북한의 가창곡 분석”에서는 북한의 가요를 제재로 음악구조와 내용, 가사, 연주를 분석하고 있다. 그와 함께 가요를 작곡한 주요 작곡가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북한

---

9) 권오성 외,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서울: 민속원, 2001).

음악의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음악만을 다룬 단행본이라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문 음악학자들의 학술 성격의 글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당시 군사정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민간의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북한 음악을 이해하고자 하기보다는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한계 때문에 북한 1차 사료들이 풍부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사와 함께 이론, 작품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첫 연구이지만 단순한 소개나 해설에 머물지 않고 본격의 음악연구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국악’을 중요 항목으로 접근하고 있어 북한 음악 연구 초기부터 북한 음악을 국악, 즉 전통음악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981년에 문예정책·이론, 문학, 미술, 연극·영화와 함께 단행본 『북한의 문화예술』에 그대로 포함되어 다시 발행된다.<sup>10)</sup> 그리고 이 책의 저자로 참여했던 한상우는 1980년대에 북한 음악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 1984년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왕래와 함께 9월 21일과 22일에 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평양예술단은 국립중앙극장에서 2회 공연을 했다.<sup>11)</sup> 이에 따라 남북은 서로의 공연에 대한 소개글과 평론글을 발표했다. 하지만 1988년까지는 군사정권 시기로 민간 자율로 진행된 학술성격의 음악글은 발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10) 장사훈·나인용·한상우, “북한의 음악,” 『북한의 문화예술』(국토통일원, 1981), 267~367쪽.

11) 『경향신문』, 1985년 9월 23일, 1, 3면 참고.

## (2) 제2기: 1989~2000

북한 음악 연구 제2기는 1988년 10월 27일 발표된 월·남북 음악들에 대한 해금 조치에서 시작한다. 해금 조치 이후 북한 음악 연구는 본격화했으며 그 첫 시작은 1989년 6월 10일 발행된 『실천문학』에 실린 노동은의 “북한의 음악문화”이다. 이 글은 1978년 장사훈·나인용·한상우의 『북한의 음악』 이후 처음으로 발견되는 실질적이면서 전문적인 음악학자의 연구이다. 이 글은 ‘음악의 정의’와 ‘음악사회의 전체적 구조’, ‘음악문예소조 활동’, ‘전문음악가 조직’, ‘시대구분과 작품’으로 구성되어 북한 음악 전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음악의 정의와 음악론 등으로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음악사회의 운영원리에 따라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이 글은 실질적으로 북한 음악 분야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성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뒤이어 1989년 12월 5일에는 두 번째로 확인되는 단행본이면서 민간 연구의 최초, 그리고 단일 저자에 의한 첫 번째 단행본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이 발행되었다.<sup>12)</sup> 이 책은 1978년 장사훈·나인용·한상우의 『북한의 음악』에 참여했던 음악평론가 한상우의 연구로 북한 음악의 이론과 창작, 국악, 음악사가 정리되어 있다. 북한 음악사를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기 구분은 『조선통사』<sup>13)</sup>의 문학사 시기 구분에 따라 5시기로 나누고 있으며 시기마다 중요한 음악을 예로 들어서 음악사를 살피고 있다. 하지만 독자화한 음악사의 시기 구분이 아니라 1987년 발행된 통사의 문학사 시기 구분을 빌려 서술하고 있는 점은 제한점이다. 그리고 음악의 실제 작품을 위주로

12)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서울: 신원문화사, 1989).

13) 전영률 외,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음악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악사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힘들다. 또한 책 전체에 사료의 출처와 참고자료가 밝혀져 있지 않아 학술서적의 성격이 부족하다.

그리고 세부 발행 월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1989년 서우석·김광순·전지호·민경찬이 집필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발행한 『1945년 이후 북한의 음악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14)</sup> 1945년 해방 후부터 1970년까지의 음악정책과 음악사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면적이지 못하고 1차 음악 사료로 2개 정도의 북한 단행본 『해방 후 조선음악』(1956)과 『해방 후 조선음악』(1979)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sup>15)</sup>

다음으로 노동은·송방송은 1990년 5월 15일 『북한의 예술』이라는 단행본에 “제2부 북한의 음악”을 발표한다.<sup>16)</sup> 노동은은 이 글을 1990년 북한 방문 후에 고치고 보충해서 1991년 1월 “북한의 민족음악”으로 다시 발표한다.<sup>17)</sup> 이 글은 북한 음악의 정의·종류·문예정책·음악기관·교육기관·음악사·실제이론 등 거의 전 분야를 서술하고 있어 북한 음악 전반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는 아직까지 가장 적당한 글이라 판단된다.

위와 같이 연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제2기 초기에는 주로 북한 음악 전반에 관해 소개하는 연구들이 보인다. 하지만

---

14) 서우석 외, 『1945년 이후 북한의 음악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15)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해방 후 조선음악』(평양: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1956); 리히립 외, 『해방 후 조선음악』(평양: 문예출판사, 1979).

16) 노동은·송방송, “북한의 음악,” 김문환 엮음, 『북한의 예술』(서울: 을유문화사, 1990), 89~200쪽.

17) 노동은, “북한의 민족음악,” 『민족음악론』(서울: 한길사, 1991), 353~454쪽.

이후부터는 차츰 북한 음악 전반이 아니라 세부 주제들로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악교육과 가극·창극 분야, 민족성악, 음악 용어 분야의 글들이 2000년까지 발표되었다. 이런 세부 분야 연구와 함께 주체사상이나 민족음악론·주체음악론에 따른 북한 음악론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분야별 연구 성과’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2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에는 민경찬이 “북한 음악의 새로운 동향”을 발표한다.<sup>18)</sup> 이 글은 1990년대 북한 음악의 새로운 특징을 1990년대 창작 음악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고찰한 글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전 시기의 글이 주로 북한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70~1980년대의 음악 위주로 연구해왔기 때문이다.

### (3) 제3기: 2001~현재

북한 음악 연구 제3기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즉 2001년부터 현재까지를 가리킨다. 이때부터 북한 음악 연구가 본격화했으며, 그 주제와 분야도 다양화되고 심화된다. 첫 시작은 2001년 4월 30일에 발행된 단행본 권오성·고방자·강영애·백일형·한영숙·이운정·김현경·송민혜·김지연·최유이·이수연·송은도의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이론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모임인 한국전통음악연구회가 1998년 9월 21일 주최한 ‘98 국악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1998년의 성과물이지만 2001년 출간에 맞춰 새롭게 수정·보완해 발행했다. 발간이 늦어진 까닭을 대표 저자인 권

---

18) 민경찬, “북한 음악의 새로운 동향,”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3집(2000), 149~177쪽.

오성이 머리말에서 1998년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북한 음악 관련 단행본을 출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2000년 이후의 남북 화해가 이 책의 발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행본은 연구보고서가 아닌 민간 자율의 두 번째 단행본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북한 음악에 관심 있는 12명의 저자들이 모여 발행한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수록된 연구들이 단행본 발행을 위해 기획되어 일관된 흐름을 갖는 글들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에 따른 개별 논문이라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12명의 저자 모두가 전문 음악학자가 아니라 학부와 석사 과정의 재학생들도 참여한 성과이다. 그 내용은 주체음악의 성격과 함께 북한 음악사, 고(古)악보, 민요, 음악용어, 벽화의 악기, 개량악기에 관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남한 전통음악계의 북한 전통음악 연구가 심화되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남북 음악교류에 따라 남한의 전통음악계는 북한의 현대화한 전통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 시기에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2002년에 출판된 황준연·신대철·권도희·성기련의 『북한의 전통음악』을 들 수 있다.<sup>19)</sup> 이 성과는 북한의 전통음악만을 독자화한 첫 단행본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북한 음악 일반이 아니라 전통음악이라는 세부화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가 등장했다는 점은 북한 음악 연구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제1장에는 음악예술론 일반을 정리하고 제2장에서는 전통음악 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전통음악 연구에 대한 사항을 정리했고 제4장에서는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어 전통음악의 현대화를 다루고 있다. 이

---

19) 황준연 외, 『북한의 전통음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연구는 저자들이 속한 남한 전통음악계의 주된 관심에 따라 주로 북한에서 보존되고 있는 전통음악을 위주로 하고 있다. 전통음악의 전승 양상과 그 연구, 개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북한에는 ‘전통음악’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다. ‘고전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연주되지 않는 음악들을 연구·보존하고 교육에 활용하기는 하지만 현재 북한의 음악 분류에는 남한과 달리 ‘서양음악’과 대별되는 ‘전통음악’의 자리가 없다.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음악’, ‘주체음악’은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고전음악과 외래에서 들어온 서양음악을 당대에 맞게, 현대화해 독자화한 ‘북한 음악’만을 가리킬 뿐이다. 따라서 남한의 전통음악계에서는 한반도 반쪽의 전통음악 유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들이 현대화한 전통음악의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북한 고전음악의 보존과 전승에 주된 관심이 있다.

이 성과에 이어 정식 출판이 아닌 교과목 개발사업의 하나로 발행된 2005년의 노동은·김수현·천현식의 『북한 전통음악 연구』가 있다.<sup>20)</sup>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관심을 갖고 출판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2007년 김영운·김혜정·이진원의 『북녘 땅 우리 소리: 악보자료집』이 자료집의 형태로 발행되었다.<sup>21)</sup> 이 연구는 악보자료집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북한의 서도민요 중심의 전통민요 연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다른 특징은 북한 음악 연구가 개별 작품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 연구는 주로 북한 음악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해설이 중심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 노동은·김수현·천현식, 『북한 전통음악 연구』(안성: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2005).

21) 김영운·김혜정·이진원, 『북녘 땅 우리 소리: 악보자료집』(서울: 민속원, 2007).

세부 주제로 그 연구 영역이 확대·심화되었다. 하지만 음악 연구가 실제 작품의 연구, 즉 작품 분석과 연결되는 것은 부족했다. 그래서 제3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음악의 특징을 개별 음악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별 작품의 분석이 해당 갈래의 음악 특징, 나아가 미학, 사회학, 역사학의 관점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의미와 평가는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로는 ‘피바다식 가극’에 대한 분석이 있다. ‘피바다식 가극’의 하나인 민족가극 <춘향전>(1988)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단행본이 2003년 발행되었다. 그것은 이영미·엄국천·윤중강·전정임·최유준·박영정이 집필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가 펴낸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이다.<sup>22)</sup> 이 단행본은 음악만의 전문서적은 아니다. 남북 예술공연 교류를 정리하고 전망하는 것이 초점이다. 하지만 제2장에서 남북한 음악극 <춘향전>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춘향전>을 중심으로 북한의 가극사를 정리하고 북한의 민족가극 <춘향전>(1988)의 음악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춘향전> 전체의 음악을 다룬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룬 점은 제한점이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 음악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석사학위논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꽤 많은 정도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학자로서 인정받는 박사학위논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처음이 2003년 이현주의 “북한 음악의 변용과 철학사상적 근거”다.<sup>23)</sup> 이 연구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전공의 논

22) 이영미 외,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서울: 시공사·시공아트, 2003).

문(철학)으로서 국악과 출신의 저자가 석사학위논문 “북한 성악곡에 관한 연구”에<sup>24)</sup> 이어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 음악의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주체사상과 음악과의 관계, 음악사, 혁명가극, 성악곡 변용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2006년 『북한 음악과 주체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정식 출판되었다.<sup>25)</sup> 이 단행본은 제2기 한상우의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저자의 단행본이자 북한 음악 연구가 본격화한 제3기의 첫 번째 단행본이라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다른 박사학위논문으로는 2012년 천현식의 “북한 가극의 특성과 변화: 혁명가극에서 민족가극으로”가 있다.<sup>26)</sup> 이 연구는 북한 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의 논문(북한학)으로서 한국음악학과 출신의 저자가 석사학위논문 “북한 음악 연구”에<sup>27)</sup> 이어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 가극을 중심으로 가극사와 함께 혁명가극<피바다>와 민족가극<춘향전> 음악 전체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작품 분석과 함께 북한 음악의 음악사회학적 의미를 연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이 시기는 북한 음악만을 다루지는 않지만 『남북문화예술연구』라는 이름으로 북한 음악을 포함한 북한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술지가 2007년 창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북문화예

---

23) 이현주, “북한 음악의 변용과 철학사상적 근거”(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4) 이현주, “북한 성악곡에 관한 연구: 북한민요를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5) 이현주, 『북한 음악과 주체철학』(서울: 민속원, 2006).

26) 천현식, “북한 가극의 특성과 변화: 혁명가극에서 민족가극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7) 천현식, “북한 음악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술연구』는 2007년 하반기(12월 15일 발행)부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차례 발간되는 반년간지로서 ‘사단법인 남북문화연구소 남북문화예술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다. 현재 2011년 상반기, 통권 8호까지 확인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학술지는 북한 음악 전문 학술지는 아니다. 하지만 창간호에 이어 3호, 5~7호에 걸쳐 북한 음악을 주제로 하는 특집·기획논문을 실고 있다. 창간호는 특집으로 “남북한 음악의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 극복 I”, 3호는 기획으로 “북한의 종교와 음악”, 5호는 기획으로 “중국의 관점에서 본 북한 음악”, 6호는 기획으로 “북한 음악의 사회주의적 근대성과 미적 특성”, 7호는 기획으로 “조선족이 바라본 북한예술”이라는 주제로 북한 음악 연구 논문을 실고 있다. 관련 논문들의 주제를 보면 이전 시기와 다르게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논문이 재중동포들의 논문이어서 이 글에서 제외되었다.

### 3. 분야별 연구 성과

이 항목에서는 북한 음악을 분야별로 나눠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하겠다. 분야는 선정한 기본 자료들의 내용과 주제를 바탕으로 ‘음악론’, ‘음악사’, ‘음악체계’, ‘전통음악’, ‘작품 분석’, ‘기타’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대표가 되는 연구를 위주로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고 하겠다.

## 1) 음악론

음악론과 관련된 글들은 최근까지 북한 음악 연구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연구의 형태는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 음악론을 설명하는 것과 ‘주체사상’과의 연결 속에서 음악론을 설명하는 논문이 있다.

먼저 김정일의 “음악예술론”<sup>28)</sup> 주요 1차 사료로 삼아서 북한 음악의 음악론을 정리·소개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1994년에 발표된 이춘길의 “북한 음악론의 현 단계”<sup>29)</sup>와 2001년에 출판된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에 실린 고방자의 “북한 주체음악의 성격: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sup>30)</sup> 2011년 배인교의 “북한 음악과 민족음악: 김정일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sup>31)</sup>가 그것들이다.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은 ‘민족음악’, ‘주체음악’으로 개념화된 북한 음악의 실제 이론을 규정하는 교과서로 정리되어 1991년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 북한 음악의 교범(敎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북한의 음악을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료이다.

다음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음악론을 정리한 글들이 있다. 오금덕은 1997년 “북한의 주체음

---

28) 1991년 7월 17일 발표된 이 글은 1992년 단행본으로 출판됐고 1997년에는 『김정일 선집』에 실렸다.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정일, “음악예술론, 1991년 7월 17일,” 『김정일 선집: 1991.1~1991.7』,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379~582쪽.

29) 이춘길, “북한 음악론의 현 단계,” 『낭만음악』, 통권 22호(1994), 55~70쪽.

30) 고방자, “북한 주체음악의 성격: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 19~54쪽.

31) 배인교, “북한 음악과 민족음악: 김정일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 『남북문화 예술연구』, 통권 8호(2011), 39~73쪽.

악 개황”에서 북한의 음악을 주체사상의 측면에서 형식과 명곡 문제, 대중화 문제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다.<sup>32)</sup> 그리고 송방송은 1998년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음악”에서 사회주의 문예이론과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북한의 민족음악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sup>33)</sup> 이현주는 2006년 『북한 음악과 주체철학』의 “제2장 북한 음악 이해의 기초로서 민족음악, 주체철학의 개념”<sup>34)</sup>에서 주체사상과 민족음악, 주체음악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 2) 음악사

음악사와 관련된 글은 북한의 음악사 자체를 정리하는 글과 함께 북한에서 행하고 있는 음악사 서술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있다.

음악사 자체를 정리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은은 1991년 『민족음악론』의 “북한의 민족음악”에서 ‘북한 음악의 현대사’<sup>35)</sup> 항목을 두어 북한 음악사를 정리한다. 이 글은 북한 음악사를 1926년부터 여덟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북한의 음악을 북한의 정책과 함께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시기 구분은 북한의 역사 서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철학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 북한의 음악을 음악사학회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영숙은 2001년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의 “북한 음악사”에서 시대

32) 오금덕, “북한의 주체음악 개황,” 『한국음악사학보』, 19집(1997), 23~33쪽.

33) 송방송,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음악,” 『한국음악사학보』, 21집(1998), 11~41쪽.

34) 이현주, 『북한 음악과 주체철학』, 27~65쪽.

35) 노동은, “북한의 민족음악,” 399~425쪽.

구분과 함께 시대별 음악사를 정리하고 있다.<sup>36)</sup> 한영숙은 북한 음악사를 북한 정부 수립 이전의 원시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대상으로 정리한다. 연구 범위가 북한 정부 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정리하고 있는 음악사 서술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그리고 음악사의 시대 구분을 남한과 북한의 음악사로 나눠 살펴보고 비교·서술한 점이 특징이다.

북한 음악사 서술의 문제를 다룬 글로는 2001년 권오성의 “북한의 ‘조선음악사’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이 있다.<sup>37)</sup> 이 글에서 권오성이 자료로 삼은 북한의 음악사 책은 문성렬과 박우영이 함께 집필하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2권으로 발행한 『조선음악사』를 제재로 하고 있다.<sup>38)</sup> 1권은 문성렬이 집필했으며 고대음악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다뤘다. 2권은 문성렬과 박우영이 공동 집필했으며 조선시대부터 북한이 현대의 기점으로 삼는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 건설 직전인 근대까지를 다뤘다. 그리고 2권 마지막 부분에서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음악활동도 덧붙여 다루고 있다. 이 사료를 제재로 권오성은 북한 음악사 서술을 해설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3) 음악체계

체계음악학의 관점에서 음악체계를 다룬 글들로 음악체계 일반 전체를 다룬 글과 음악교육, 음악개량, 음악단체, 가극으로 나누어 살펴

36) 한영숙, “북한 음악사,”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 145~195쪽.

37) 권오성, “북한의 ‘조선음악사’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동양예술』, 3호(2001), 99~110쪽.

38) 문성렬, 『조선음악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문성렬·박우영, 『조선음악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보려고 한다.

먼저 음악체계 일반 전체를 다룬 글로는 노동은의 연구가 있다. 노동은은 1991년 『민족음악론』의 “북한의 민족음악”에서 ‘민족음악이론의 실제’<sup>39)</sup> 항목을 두어 북한의 음악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조식과 창법, 악기개량 등의 실제 이론과 함께 민족음악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민족음악’은 북한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북한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음악교육 연구로는 먼저 1993년 이성천의 “북한의 음악교육(1)”이 있다.<sup>40)</sup> 이 글은 음악학자의 음악교육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그와 함께 인민학교 1·2학년 음악교과서를 분석해 그 특징을 살피고 있다. 다음으로는 2000년 장기범·정영일·이도식·김대원의 『남북한 초·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가 있다.<sup>41)</sup> 이 단행본은 연구보고서로서 교육학계에서 북한의 음악교육을 접근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했으며 그와 함께 남북한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음악개량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황준연·신대철·권도희·성기련은 2002년 『북한의 전통음악』의 ‘제4장 개량음악’<sup>42)</sup>에서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어 음악개량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기악은 민족악기와 배합관현악으로 다시 나누고 성악에서는 주체적 발성법과 민요창법

---

39) 노동은, “북한의 민족음악,” 426~443쪽.

40) 이성천, “북한의 음악교육(1),” 『국악과교육』, 11집(1993), 21~41쪽.

41) 장기범 외, 『남북한 초·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서울: 서울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2000).

42) 황준연 외, 『북한의 전통음악』, 231~275쪽.

계발로 나누어 정리한다. 다음으로 노동은 2011년 “북한 민족관현악, 그 소통과 혁신”이라는 글을 발표해 북한이 개량한 민족관현악의 성과와 특징을 정리한다.<sup>43)</sup> 이 글에서 북한의 민족관현악이 민족음악 건설에서 대중과의 소통과 혁신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북한의 음악개량에 대한 소개와 해설을 넘어 음악학의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의 음악단체에 관한 연구로는 2002년 노동은의 “북한중앙음악 단체의 현황과 전망”이 있다.<sup>44)</sup> 이 글은 북한의 대표 음악단체들을 특징과 함께 다루고 있어 북한의 음악단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다.

끝으로 가극 연구를 보려고 한다. 개별 가극 연구는 작품 분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항목의 연구들은 개별 가극작품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가극 일반의 특징을 논의하고 있어 북한 음악의 일반적 체계를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가극이 북한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북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온 갈래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영미는 2001년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특성과 서사적 성격”에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특징을 방창과 흐름식 무대가 서사성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sup>45)</sup> 이는 해당 갈래의 특성을 작품 내부 원리와 함께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민경찬은 2002년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음악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므로써 북한의 문

43) 노동은, “북한 민족관현악, 그 소통과 혁신,” 『음악과문화』, 24호(2011), 5~45쪽.

44) 노동은, “북한중앙음악단체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28집(2002), 65~122쪽.

45) 이영미,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특성과 서사적 성격,”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4권(2001), 119~137쪽.

예이론이 실제 음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sup>46)</sup>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중요 특징인 혁명가요, 절가, 방창, 관현악 편성, 음계 등을 단순한 해설의 수준이 아니라 음악의 측면에서 분석·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천현식은 2010년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감정 훈련: ‘집단주의’와 ‘지도와 대중’을 중심으로”에서 북한의 유일체제를 유지하는 원리의 하나로 문학예술, 그중에서도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통한 ‘감정훈련’에 대해 논하고 있다.<sup>47)</sup> 가극의 구성요소를 분석해 공적 교육에서 이뤄지는 교육보다 효과적으로 새로운 인간형, 즉 ‘집단주의’를 실현하면서도 ‘지도와 대중’의 관계를 체득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기술했다.

#### 4) 전통음악

전통음악 연구를 따로 항목화한 것은 음악 일반에 관한 관심과 별개로 남한의 연구가 북한의 전통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음악은 고전음악을 계승하고 서양음악을 수용해 독자화하고 현대화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전통음악계에서는 북한 지역의 전통음악 유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남북한의 근대사에서 서양음악과 일본음악의 유입으로 끊기다시피 한 전통음악을 현재에 맞게 복원하는 데 대한 남북한 공통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나아가 남북한이

46) 민경찬,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28집(2002), 123~134쪽.

47) 천현식,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감정훈련: ‘집단주의’와 ‘지도와 대중’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3권 3호(2010), 201~240쪽.

통일의 과정에서 전통음악을 공동의 민족유산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민족음악, 통일음악의 자원으로 쓸 것에 대한 관심이 었다. 이에 따라 특히 남한의 전통음악계는 북한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남북 음악교류 이후 상대적으로 원형이 사라진 북한 음악에 비해 잘 보존된 남한의 전통음악을 보고 민족유산으로서 남쪽의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새롭게 북한에서의 고전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고전음악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북한의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은 제1·2기에는 주로 전통음악 일반의 전체 상황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며 나타났다. 그리고 제3기에 들어서면서 전통음악 중에서 세분화된 소재와 주제로 음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연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통음악 일반의 전체 상황을 연구한 자료로는 1978년 장사훈·나인용·한상우의 『북한의 음악』에 장사훈의 집필로 실린 ‘제1부 북한의 국악’이 있다.<sup>48)</sup> 이 글은 전통음악 연구의 처음이자 북한 음악 연구의 첫 성과로서 실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대학교 음대교수였던 국악학자 장사훈은 이 글에서 1960년대를 중심으로 ‘북한 음악의 연혁’에서 판소리·관악기·현악기의 상황을 서술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민족음악관’을 배합관현악을 예로 들어 서술했다. 그리고 ‘이론’에서 국악이론으로 주체적 발성법과 학술활동을 정리·소개했다. 이 연구의 내용과 주제는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제대로 시작된 북한 음악, 그중에서도 특히 전통음악의 연구와 상당부분 일치

---

48) 장사훈, “제1부 북한의 국악,” 『북한의 음악』, 3~31쪽.

하고 있어 남한 전통음악계의 북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초창기에 이미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러 저자의 독립적인 글을 한데 모아 발표한 것이라는 제한점을 가지지만 전통음악에 대한 글 다수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로 2001년 권오성·고방자·강영애·백일형·한영숙·이운정·김현경·송민혜·김지연·최유이·이수연·송은도의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가 있다. 이 단행본에는 권오성의 “북한 소재 고악보와 그에 대한 인식(9~18쪽)”과 강영애의 “북한의 민요 연구(57~87쪽)”, 백일형의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악기 소고(89~144쪽)”, 김지연·최유이·이수연·송은도의 “북한 개량악기의 현황(253~295쪽)”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단행본으로 2002년 황준연·신대철·권도희·성기련의 『북한의 전통음악』이 있다. 이 책의 ‘제2장 전통음악의 전승 양상’과 ‘제3장 전통음악 연구’가 전통음악에 중심을 둔 항목이다. ‘제2장 전통음악의 전승 양상’에서는 갈래별로 나누어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음악을 정리했다. ‘제3장 전통음악연구’에서는 음악 연구기관과 음악사 연구, 음악이론 연구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전통음악의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자료로는 2005년 노동은·김수현·천현식의 『북한 전통음악 연구』가 있다. 그중 노동은의 “1. 북한전통음악론”은 전통음악론과 함께 음계와 장단, 농음과 같은 전통음악의 음악이론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악기개량과 관현악, 교육기관과 단체 등이 함께 서술되어 있다.

두 번째로 전통음악 중에서 세분화된 소재와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권도희는 2007년 “북한의 민요 연구사 개관”에서 북한 민요사 연구를 개괄하고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다.<sup>49)</sup> 배인교는

2009년 “1950~1960년대 북한 전통 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창극 관련 음악인을 중심으로”에서 창극 음악인을 중심으로 하면서 재북 국악인과 월북 국악인으로 나누어 1950~1960년대 북한의 전통음악인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sup>50)</sup> 배인교는 또 2010년 “북한의 민요식 노래와 민족장단”에서 북측 자료인 『조선민족음악전집』의 노래를 제재로 장단의 변화를 시대에 따라 고찰했다.<sup>51)</sup> 그는 1970년대 주체사상 확립 이후 3소박보다는 2소박 장단, 흥겨우면서도 유순한 장단이 사용되었다고 분석한다.<sup>52)</sup>

## 5) 작품 분석

개별 작품을 분석해 음악적 의미를 연구한 글은 북한 음악 연구의 첫 성과인 1978년 장사훈·나인용·한상우의 『북한의 음악』에서 등장한 이후에는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장사훈·나인용·한상우의 『북한의 음악』을 제외하고는 작품 분석의 글이 보이지 않으며 제3기에서도 최근에야 두드러지고 있다. 연구 유형은 크게 보면 가극 작품을 분석하는 글과 나머지 기타 유형이 보인다.

가극 작품을 분석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3년 이영미·엄국천·윤중강·전정임·최유준·박영정의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이 있다. 이 단행본에서 최유준은 ‘북한 민족가

49) 권도희, “북한의 민요 연구사 개관,” 『동양음악』, 29집(2007), 217~240쪽.

50) 배인교, “1950~1960년대 북한 전통 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창극 관련 음악인을 중심으로,” 『판소리 연구』, 28집(2009), 137~169쪽.

51)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풍의 노래편 1』(평양: 예술교육출판사, 2000).

52) 배인교, “북한의 민요식 노래와 민족장단,” 『우리 춤 연구』, 12집(2010), 147~180쪽.

극 <춘향전>의 ‘음악적 측면’ 항목에서 <춘향전> 전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음악 분석을 하고 있다.<sup>53)</sup> 이 글은 북한 ‘피바다식 가극’의 특징인 방창과 절가 일반을 설명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 분석에서 그 효과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현주는 2010년 “<꽃피는 처녀>의 음악적 특성 연구”에서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의 내용과 함께 음악을 분석했는데, 음악적 측면에서 <꽃피는 처녀>의 성공 요인을 정리했다.<sup>54)</sup> 천현식은 2012년 “북한 가극의 특성과 변화: 혁명가극에서 민족가극으로”에서 해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 북한 가극이 일관성을 지니면서도 ‘혁명가극’에서 ‘민족가극’으로 변화된 특성을 살폈다. 이 글은 음악사회학의 관점에서 특정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운영원리와 변화를 연구했다. 음악 일반의 보편성과 함께 사회주의 예술의 보편성 속에서 북한 문학예술의 특수성을 정리하고 있다.

나머지로는 기타 주제들이 있다. 먼저 1978년 장사훈·나인용·한상우의 『북한의 음악』이 있다. 여기서 나인용은 “제2부 북한의 관현악곡 편곡의 문제점”에서 관현악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내 고향의 정든 집>, <문경고개>를 제재로 형식과 선율, 화음, 리듬, 관현악법을 분석한다.<sup>55)</sup> 그리고 한상우는 “제3부 북한의 가창곡 분석”에서 북한의 가요를 제재로 음악구조와 내용, 가사, 연주를 분석하고 있다. 그와 함께 가요를 작곡한 주요 작곡가를 조사했다.<sup>56)</sup> 다음으로 이소

53) 최유준, “음악적 측면,”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 306~322쪽.

54) 이현주, “<꽃 피는 처녀>의 음악적 특성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93~128쪽.

55) 나인용, “제2부 북한의 관현악곡 편곡의 문제점,” 『북한의 음악』, 33~81쪽.

56) 한상우, “제3부 북한의 가창곡 분석,” 『북한의 음악』, 83~115쪽.

영은 2010년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에서 근대 시기 서양음악, 일본음악 등 외래 음악의 영향을 받은 한국음악의 혼종성을 연구했다. 민요 <노들강변>을 제재로 남북한으로 나누어 분석·비교한다.<sup>57)</sup> 배인교는 2012년 “북한 초기 음악계의 동향과 교성곡 <압록강>”에서 해방기 음악 상황과 함께 당시를 배경으로 1949년에 창작된 김옥성의 교성곡 <압록강>의 평가 변화를 고찰한다.<sup>58)</sup>

## 6) 기타

기타 자료로는 악보자료집과 북한 음악의 음원 목록이 있다. 2007년 김영운·김혜정·이진원의 『북녘 땅 우리 소리: 악보자료집』에는 북한 지역의 전통 토속민요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2010년 김지연의 “북한자료센터 소장 음반 목록”에는 통일부 산하의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카트리지(cartridge), 릴 테이프, 엘피(LP), 카세트테이프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sup>59)</sup> 그리고 김지연의 “북한자료센터 소장 CD음반 목록”에는 마찬가지로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시디(CD)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sup>60)</sup>

57) 이소영,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 『한국민요학』, 29집(2010), 301~374쪽.

58) 배인교, “북한 초기 음악계의 동향과 교성곡 <압록강>,” 남북문화예술연구회, 『북한 문화예술의 지형도 3: 해방기 북한 문화예술의 형성과 전개』(서울: 역락, 2012), 317~349쪽.

59) 김지연, “북한자료센터 소장 음반 목록,” 『한국음반학』, 20호(2010), 277~307쪽.

60) 김지연, “북한자료센터 소장 CD음반 목록,” 『한국음악사학보』, 45집(2010), 435~466쪽.

#### 4. 마무리 글

북한 음악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시기는 제1기로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까지, 제2기는 1988년 10월 27일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 이후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까지, 제3기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했다. 제1기는 1948년부터이지만 분단으로 인한 냉전의 영향으로 북한 연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978년이 되어서야 북한 음악 연구가 확인된다. 그것은 장사훈·나인용·한상우의 『북한의 음악』으로 정부에 의한 연구보고서의 성격이었고, 제1기 기간 내내 학술 성격의 글로는 유일하다. 이후 민주화와 함께 진행된 월·남북 음악인들의 해금 조치 이후 제2기가 출발하며 민간의 독자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2기부터가 북한 음악 연구의 실질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부터는 북한 음악에 대한 소개와 해설이 주를 이뤘다. 제3기부터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계와 함께 북한 음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민간과 정부 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었고 연구 주제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심화되어 학술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들어 북한 음악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고 북한 음악을 포함하는 남북 문화예술 관련 학술지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분야별 연구 성과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음악, 주체음악을 북한 정치사상의 관계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북한 음악론 글이 많이 보인다. 이는 북한 음악 자체가 사상성과 예술성의 관계에서 사상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특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다른 주제의 상당수 글들도 조금씩이나마 북한의 음악론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음악 분야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역시도 북한 음악 연구의 특징 때문이다. 북한의 음악은 고전음악을 계승하고 서양음악을 수용해 독자화하고 현대화한 음악이기 때문에 남한의 국악계에서 북한 지역의 전통음악 유산과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른 연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통음악 유산을 조사하고 정리·해설하는 유형과 함께 개량악기와 배합관현악, 주체적 발성법과 같은 음악개량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북한 음악에 관한 주제와 내용이 심화·확대되면서 개별 작품 분석이 등장했다. 해당 사회 음악의 일반적 특징은 개별 작품의 분석으로 드러나야 하며 반대로 개별 작품의 분석으로 해당 사회의 음악 특징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는 것은 북한 음악 연구가 본격화되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음악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방향,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개별 작품의 분석이 음악학의 관점에서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작품 분석이 단순한 음악형식의 분석과 음악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작품을 둘러싼 미학과 세계관을 밝히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까지 밝히는 과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북한 음악 연구가 음악 자체만의 논의로 머물지 않고 인간학으로서 발전될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북한 음악 연구가 단지 북한 음악 자체의 연구에 머물지 않고 남한의 음악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비판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 음악 연구가 결국 실질적으로 남한음악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 외래 음악인 서양음

악 위주인 남한의 음악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단지 남한음악 연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민족음악’, ‘통일음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접수: 7월 4일 / 수정: 7월 30일 / 채택: 8월 1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풍의 노래편 1』(평양: 예술교육출판사, 2000).

『해방후 조선음악』(평양: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1956).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리히림 외, 『해방후 조선음악』(평양: 문예출판사, 1979).

문성렬, 『조선음악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문성렬·박우영, 『조선음악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전영률 외,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2) 논문

김정일, “음악예술론, 1991년 7월 17일,” 『김정일 선집: 1991.1~1991.7』,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2. 국내자료

#### 1) 단행본

권오성 외,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서울: 민속원, 2001).

김영운·김혜정·이진원, 『북녘 땅 우리 소리: 악보자료집』(서울: 민속원, 2007).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서울: 청송, 2002).

노동은, 『김순남 그 삶과 예술』(서울: 낭만음악사, 1992).

노동은·김수현·천현식, 『북한 전통음악 연구』(안성: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2005).

서우석 외, 『1945년 이후 북한의 음악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이영미 외,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서울: 시공사·시공아트, 2003).

이현주, 『북한 음악과 주체철학』(서울: 민속원, 2006).

- 장기범 외, 『남북한 초·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서울: 서울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2000).
- 한국비평문학회, 『북한 가극·연극 40년: 5대 성과작을 중심으로』(서울: 신원문화사, 1990).
-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서울: 신원문화사, 1989).
- 황준연 외, 『북한의 전통음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2) 논문

- 김지연, “북한자료센터 소장 음반 목록,” 『한국음반학』, 20호(2010).
- \_\_\_\_\_, “북한자료센터 소장 CD음반 목록,” 『한국음악사학보』, 45집(2010)
- 권도희, “북한의 민요 연구사 개관,” 『동양음악』, 29집(2007).
- 권오성, “북한의 민족성악의 개념과 실제,” 『이혜구박사구순기념 음악학논총』(서울: 이해구학술상운영위원회, 1998).
- \_\_\_\_\_, “북한의 ‘조선음악사’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동양예술』, 3호(2001).
- \_\_\_\_\_, “난계 박연선생에 대한 북한 음악계의 평가에 대하여,” 『한국음악연구』, 42집(2007).
- \_\_\_\_\_, “남북음악 공동 연구의 필요성 및 방안,”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1호(2007).
- \_\_\_\_\_, “판소리 발성법의 특성: 조상선의 글을 중심으로,” 『국악원 논문집』, 17집(2008).
- 김중현·엄국천, “북한 창극의 현대화 과정,” 『중양우수 논문집』, 2집(2000).
- 노동은·송방송, “북한의 음악,” 김문환 엮음, 『북한의 예술』(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노동은, “북한의 음악문화,” 『실천문학』, 통권 14호(1990).
- \_\_\_\_\_, “북한의 민족음악,” 『민족음악론』(서울: 한길사, 1991).
- \_\_\_\_\_, “북한의 민족음악현황과 과제,” 『중양음악 연구』, 3집(1992).
- \_\_\_\_\_, “북한중양음악단체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28집(2002).
- \_\_\_\_\_, “북한의 전통음악론,” 『한국근대음악사론』(과주: 한국학술정보, 2010)
- \_\_\_\_\_, “북한 민족관현악, 그 소통과 혁신,” 『음악과문화』, 24호(2011).
- 민경찬, “북한의 혁명가요와 일본의 노래,” 『한국음악사학보』, 20집(1998).
- \_\_\_\_\_, “음악 부문의 교류와 정부·민간 역할 분담 및 정책개발,” 『남북한 문화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 \_\_\_\_\_, “북한 음악의 새로운 동향,”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3집(2000).
- \_\_\_\_\_, “북한의 ‘아리랑축전’과 음악,” 『민족무용』, 1호(2002).
- \_\_\_\_\_,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28집(2002).
- 박균열·성현영·양희천,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 『통일전략』, 10권 3호(2010).
- 박은옥, “중국과 한국에서의 북한 음악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5호(2009).
- 배인교, “1950~1960년대 북한 전통 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창극 관련 음악인을 중심으로,” 『관소리 연구』, 28집(2009).
- \_\_\_\_\_, “북한의 민요식 노래와 민족장단,” 『우리 춤 연구』, 12집(2010).
- \_\_\_\_\_, “박연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와 평가,” 『한국음악 연구』, 48집(2010).
- \_\_\_\_\_, “북한 음악의 유형분류와 체계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 \_\_\_\_\_, “북한 음악과 민족음악: 김정일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8호(2011).
- \_\_\_\_\_, “북한 초기 음악계의 동향과 교성곡 <압록강>,” 남북문화예술연구회, 『북한 문학예술의 지형도 3: 해방기 북한 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서울: 역락, 2012).
- 송방송,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음악,” 『한국음악사학보』, 21집(1998).
- 신대철, “북한 민족음악의 실체(I): 북한 문화예술론과 음악론의 흐름에 기초하여,” 『이화음악논집』, 3집(1999).
- 신대철, “통일문화 시각으로 본 북한의 민족음악,” 『통일문제 연구』, 12집(1995).
- 오금덕, “북한의 주체음악 개황,” 『한국음악사학보』, 19집(1997).
- 윤명원,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한국전통음악학』, 1호(2000).
- 이건용, “김순남·이건우의 가곡에 대한 양식적 검토,” 『낭만음악』, 통권1호(1988).
- 이소영,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 『한국민요학』, 29집(2010).
- 이성천, “북한의 음악교육(1),” 『국악과교육』, 11집(1993).
- 이수원, “북한 음악을 통해 본 경제발전전략: 김정은 공식등장 이후 김정일이

- 관람한 공연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36집 1호(2011).
- 이영미,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특성과 서사적 성격,”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4권(2001).
- 이춘길, “북한 음악론의 현 단계,” 『낭만음악』, 통권 22호(1994).
- 이춘길, “1960~1970년대 북한 음악예술정책의 전개에 대한 고찰: 김정일의 음악부문 지도활동을 중심으로,” 『음악과민족』, 30호(2005).
- 이현주, “북한 성악곡에 관한 연구: 북한민요를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_\_\_\_\_, “북한 음악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음악학』, 1호(2000).
- \_\_\_\_\_, “북한 피바다식 혁명가극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음악학』, 3호(2002)
- \_\_\_\_\_, “북한 음악의 변용과 철학사상적 근거”(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_\_\_\_\_, “<꽃 피는 처녀>의 음악적 특성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 임경화, “북한 노래의 탄생: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인민가요 성립 고찰,” 『북한 연구학회보』, 15권 2호(2011).
- 장기범, “북한의 음악: 철학, 형식, 종류에 대한 고찰,” 『음악교육 연구』, 19집 (2000).
- 장사훈·나인용·한상우, “북한의 음악,” 『북한의 문화예술』(국토통일원, 1981).
- 전영선,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0권 1호(2007).
- 천현식, “북한 음악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노동은의 북한 음악 연구,” 『노동은과 민족음악, 그 길 함께 걷다』(서울: 민속원, 2006).
- \_\_\_\_\_,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김정훈론: ‘집단주의’와 ‘지도와 대중’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3권 3호(2010).
- \_\_\_\_\_, “북한 가극의 특성과 변화: 혁명가극에서 민족가극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영애, “북한 음악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 (2010).
- 한만영, “부록: 평양예술단의 두 가지 형태의 음악,” 『민족음악학』, 7집(1985).
- 한상우, “노래보다 가사 전달 중시하는 음악,” 『북한』, 3월호(1984), 통권 147

호(1984).

한승호, “북한 은하수관현악단의 2010년 <설명절음악회> 공연 연구,” 『북한학 연구』, 6권 1호(2010).

한영화, “북한의 전문 피아노 연주자 교육 연구,” 『음악교육공학』, 6호(2007)

황성호, “작곡부문: 미증유의 결실이 주는 의미,” 『문예연감: 1988년도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현재원, “북한 혁명가극에 나타난 가요형식과 극적 효과,” 『북한문화 연구』, 제2집(1995).

### 3) 기타자료

『경향신문』, 1985년 9월 23일.

『경향신문』, 1988년 10월 27일.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28일.

노동은, “남북통일음악 발전계획,” 『전통공연예술 진흥방안』, 94국악의 해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문(1994.11.30).

## [부록] 북한 음악 연구성과 목록

번호	분류	연도	연구	특징
1	성과	2006	천현식, “노동은의 북한 음악 연구,” 『노동은과 민족음악, 그 길 함께 걷다』(서울: 민족원, 2006).	· 노동은의 북한 음악 연구 성과
2	성과	2009	박은옥, “중국과 한국에서의 북한 음악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5호(2009), 19~51쪽.	· 중국과 한국의 북한 음악 연구 성과
3	단행	1978	장사훈·나인용·한상우, 『북한의 음악』(국토통일원, 1978).	· 최초 연구이자 최초의 단행본(연구보고서) · 정부 연구 · 역사와 이론, 곡분석
4	단행	1989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서울: 신원문화사, 1989).	· 최초의 단일 학자 단행본 · 이론과 창작, 국악, 음악사 ·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의 문학사 시기 구분에 따라 5시기로 나누고 있으며 시기마다 중요한 음악을 예로 들어서 북한 음악사 정리 · 음악사를 당시의 기존 문학사 시기 구분에 따름 · 음악의 실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북한 음악사 흐름을 살펴보기 힘들 · 사료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음
5	단행	1989	서우석 외, 『1945년 이후 북한의 음악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 단행본(연구보고서) · 해방 후부터 1970년까지의 음악 정책과 음악사를 서술 · 전면적이지 못하고 음악 사료를 2개 정도의 북한 단행본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
6	단행	1990	한국비평문화회, 『북한 가극·연극 40년: 5대 성과작을 중심으로』(서울: 신원문화사, 1990).	· 가극 · 소개와 해설 위주 · 음악 위주 아님
7	단행	2000	장기범 외, 『남북한 초·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서울: 서울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2000).	· 교육학적 성과(연구보고서) ·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남북비교
8	단행	2001	권오성 외, 『북한 음악의 이모저모』(서울: 민족원, 2001).	· 민간 자율의 두 번째 단행본 · 기존 발표 논문 모은 여러 명의 저자 · 일관된 구성이 아니고 전문학자 위주 아님 · 전통음악 위주

9	단행	2002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서울: 청송,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에 한정</li> <li>· 음악 전문서적 아님</li> </ul>
10	단행	2002	황준연 외, 『북한의 전통음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음악 분야의 첫 단행본</li> <li>· 음악예술과 함께 전통음악 전체 망라</li> <li>· 보존과 개량 관점</li> </ul>
11	단행	2003	이영미 외,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춘향전과 초기 교류공연』(서울: 시공사-시공아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전문서적 아님</li> <li>· 음악교류사와 전망</li> <li>· 북한의 가극사와 민족가극 &lt;춘향전&gt;의 음악분석</li> </ul>
12	단행	2005	노동은·김수현·천현식, 『북한 전통음악 연구』(안성: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 형태의 여러 저자</li> <li>· 전통음악 단행본</li> <li>· 전통음악 현대화 초점</li> </ul>
13	단행	2006	이현주, 『북한 음악과 주체철학』(서울: 민속원,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논문 출판</li> <li>· 두 번째 단독 저자의 단행본</li> <li>· 주체사상과의 관계, 음악사, 혁명가극, 성악곡 변용 중심</li> </ul>
14	단행	2007	김영운·김혜정·이진원, 『북녘 땅 우리 소리: 악보자료집』(서울: 민속원,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보자료집 위주</li> <li>· 서도민요 중심의 전통민요 연구</li> </ul>
15	학위	2003	이현주, “북한 음악의 변용과 철학사상적 근거”(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박사학위논문</li> <li>· 주체사상과의 관계, 음악사, 혁명가극, 성악곡 변용 중심</li> </ul>
16	학위	2012	천현식, “북한 가극의 특성과 변화: 혁명가극에서 민족가극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번째 박사학위논문</li> <li>· 북한 가극 중심</li> <li>· 개별 작품 분석과 함께 북한 음악의 음악사회학 분석</li> </ul>
17	논문	1984	한상우, “노래보다 가사 전달 중시하는 음악,” 『북한』, 3월호(1984), 통권 147호(1984), 78~85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음악 특징 악술</li> <li>· 학술논문 아님</li> </ul>
18	논문	1985	한만영, “부록: 평양예술단의 두 가지 형태의 음악,” 『민족음악학』, 7집(1985), 47~54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5년 9월 21~22일 평양예술단 서울 국립극장 공연 평가</li> </ul>
19	논문	1988	이건용, “김순남·이건우의 가곡에 대한 양식적 검토,” 『낭만음악』, 통권1호(1988), 6~3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정부 수립 이후 음악 연구가 아님</li> <li>· 월북 작곡가의 해방기 작품 연구</li> <li>· 작품분석 연구(음악분석 중심)</li> <li>· 1988년 해금 이후 첫 북한 음악 연구</li> </ul>
20	논문	1989	노동은, “북한의 음악문화,” 『실천문학』, 통권 14호(1990), 130~150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의 정의’, ‘음악사회의 전체적 구조’, ‘음악문예소조 활동’, ‘전문음악가 조직’, ‘시대구분과 작품’들의 북한 음악 전반</li> <li>· 음악의 정의와 음악론 등으로 철학적 접근, 음악사회의 운영원리에 따라 그 구조를 파악</li> </ul>

21	논문	1991	노동은, “북한의 민족음악,” 『민족음악론』(서울: 한길사, 1991), 353~454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음악의 정의, 종류, 문예정책, 음악기관, 교육기관, 음악사, 실제이론 등 거의 전 분야를 서술</li> </ul>
22	논문	1992	노동은, “북한의 민족음악현황과 과제,” 『중앙음악 연구』, 3집(1992), 13~19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민족음악과 서양음악의 구분과 적용, 민족음악에서 민요와 아악의 관계, 민족음악과 주체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 예와 함께 서술</li> </ul>
23	논문	1993	이성천, “북한의 음악교육(1),” 『국악과 교육』, 11집(1993), 21~4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학자의 음악교육 연구</li> <li>· 교육제도, 교육과정</li> <li>· 인민학교 1, 2학년 음악교과서 분석</li> </ul>
24	논문	1994	이춘길, “북한 음악론의 현 단계,” 『낭만음악』, 통권 22호(1994), 55~70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음악론을 김정일의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으로 파악 분석</li> </ul>
25	논문	1994	노동은, “남북통일음악 발전계획,” 『전통공연예술 진흥방안』, 94국악의 해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문(1994.11.30), 47~9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의 전통음악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분야임을 총체적으로 밝히며 정책 대안으로 ‘통일음악위원회’ 제안</li> <li>· 남북한 교류방침 제안</li> <li>· 1995년 ‘범민족통일음악회’와 1998년 ‘윤이상통일음악회’에 참여하고 실제 작품교류에 적용</li> </ul>
26	논문	1995	현재원, “북한 혁명가극에 나타난 가요 형식과 극적 효과,” 『북한문화 연구』, 제 2집(1995), 183~19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학자의 성과</li> <li>· ‘피바다식 혁명가극’에서 부르는 혁명가요의 형식과 기능, 극적 효과와 기능</li> <li>· 절가와 방창을 음악양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가사로 접근</li> </ul>
27	논문	1995	신대철, “통일문화 시각으로 본 북한의 민족음악,” 『통일문제 연구』, 12집(1995), 17~5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음악의 관점에서 북한의 민족음악, 주체음악분석</li> <li>· 김정일의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중심</li> </ul>
28	논문	1997	오금덕, “북한의 주체음악 개황,” 『한국음악사학보』, 19집(1997), 23~33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음악을 주체사상의 측면에서 형식과 명곡문제, 대중화문제 등을 주제로 연구</li> </ul>
29	논문	1998	민경찬, “북한의 혁명가요와 일본의 노래,” 『한국음악사학보』, 20집(1998), 125~157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혁명가요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노래 확인</li> </ul>
30	논문	1998	송방송,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음악,” 『한국음악사학보』, 21집(1998), 11~4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문예이론,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북한의 민족음악을 이론적으로 검토</li> </ul>
31	논문	1998	권오성, “북한의 민족성악의 개념과 실제,” 『이혜구박사구순기념 음악학논총』(서울: 이혜구학술상운영위원회, 1998), 27~44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민족성악의 개념</li> <li>· 집체의 『민족성악교측본』(평양: 문예출판사, 1970) 소개</li> </ul>

32	논문	1999	신대철, “북한 민족음악의 실체(1): 북한 문화예술론과 음악론의 흐름에 기초하여,” 『이화음악논집』, 3집(1999), 181~198쪽.	· 해방 이후 역사적 배경과 함께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주제 문예사상, 주제음악론 연구
33	논문	2000	김중현·엄국천, “북한 창극의 현대화 과정,” 『중앙우수 논문집』, 2집(2000), 368~421쪽.	· 간단하지만 북한의 창극사를 서술 · 제도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창극을 이후 정착되는 ‘피바다식 가극’의 특징으로 구분해 분석
34	논문	2000	민경찬, “음악 부문의 교류와 정부·민간 역할 분담 및 정책개발,”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47~49쪽.	· 남북한 음악교류의 항목을 제시하고 ‘남북문화예술교류 심의위원회’ 제안
35	논문	2000	이현주, “북한 음악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음악학』, 1호(2000), 185~220쪽.	· 음악용어, 조식, 노래, 악기, 특성에 대해 서술
36	논문	2000	윤명인,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한국전통음악학』, 1호(2000), 341~363쪽.	· 북한의 언어정책과 함께 남북한 음악용어 비교
37	논문	2000	민경찬, “북한 음악의 새로운 동향,”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3집(2000), 149~177쪽.	· 1990년대 창작된 음악을 바탕으로 북한 음악의 새로운 특징 연구
38	논문	2000	장기범, “북한의 음악: 철학, 형식, 종류에 대한 고찰,” 『음악교육 연구』, 19집(2000), 161~180쪽.	· 북한 음악의 철학적 배경, 형식과 종류 · 음악교육과 악곡
39	논문	2001	권오성, “북한의 ‘조선음악사’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동양예술』, 3호(2001), 99~110쪽.	· 문성림의 『조선음악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과 문성림·박우영의 『조선음악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의 해설과 문제점 지적
40	논문	2001	이영미,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특성과 서사적 성격,”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4권(2001), 119~137쪽.	·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특징 가운데 특히 방창과 흐름식 무대가 서사성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 · 작품의 특성을 작품 내부 원리와 함께 설명
41	논문	2002	이현주, “북한 피바다식 혁명가극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음악학』, 3호(2002), 381~402쪽.	·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생성배경과 함께 한국의 창극이나 서양의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갈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 · 북한의 가극이 관소리를 원류로 하고 있다고 주장 · ‘혁명가극 <피바다>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와 중국 『혈해지창(血海之唱)』의 영향이라고 주장

42	논문	2002	노동은, “북한중앙음악단체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28집(2002), 65~122쪽.	· 북한의 대표 음악단체들을 특징과 함께 다루고 있음
43	논문	2002	민경찬, “북한의 ‘아리랑축전’과 음악,” 『민족무용』, 1호(2002), 93~111쪽.	· 아리랑 축전에 사용된 음악을 연구
44	논문	2002	민경찬,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28집(2002), 123~134쪽.	·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음악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문예이론이 실제 음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 ·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중요 특징인 혁명가요, 절가, 방창, 관현악 편성, 음계 등을 음악의 측면에서 설명
45	논문	2005	이춘길, “1960~1970년대 북한 음악에 술정책의 전개에 대한 고찰: 김정일의 음악부문 지도활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30호(2005), 261~280쪽.	· 김정일이 주도했던 1960~1970년대의 문학예술혁명을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 기극혁명과 김정일의 “영화예술론”(『김정일 선집: 1973』,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음악 중심
46	논문	2007	전영선,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0권 1호(2007), 51~85쪽.	· 김정일 시대 ‘음악정치’의 배경과 이념화 과정, 효과 분석
47	논문	2007	권오성, “난계 박연선생에 대한 북한 음악계의 평가에 대하여,” 『한국음악연구』, 42집(2007), 313~319쪽.	·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선의 악학자인 박연에 대한 북한의 평가 소개
48	논문	2007	권오성, “남북음악 공동 연구의 필요성 및 방안,”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1호(2007), 13~27쪽.	· 남북 음악학자들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 제시
49	논문	2007	한영화, “북한의 전문 피아노 연주자 교육 연구,” 『음악교육공학』, 6호(2007), 55~69쪽.	· 탈북 음악가의 인터뷰와 피아노 교재로 북한의 전문 피아노 연주자 교육제도과 교재분석
50	논문	2007	권도희, “북한의 민요 연구사 개관,” 『동양음악』, 29집(2007), 217~240쪽.	· 북한 민요사 연구를 개괄하고 성과와 한계 지적
51	논문	2008	권오성, “판소리 발생법의 특성: 조상선의 글을 중심으로,” 『국악원 논문집』, 17집(2008), 3~34쪽.	· 1961년 북한의 음악잡지 『조선음악』에 수록된 월북 판소리 음악인 조상선의 “선조들의 성악 유산을 계승발전시키자 1”(『조선음악』, 1961년 8호, 루게 56호, 1961, 34~40쪽)과 “선조들의 성악 유산을 계승발전시키자 2”(『조선음악』, 1961년 9호, 루게 57호, 1961, 35~41쪽)를 중심으로 북한의 판소리 발생법을 소개

52	논문	2009	배인교, “1950~1960년대 북한 전통 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창극 관련 음악인을 중심으로,” 『관소리 연구』, 28집(2009), 137~169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극 음악인을 중심으로 하면서 재북국악인과 월북 국악인으로 나누어 1950~1960년대 북한의 전통음악인 활동 정리</li> </ul>
53	논문	2010	한승호, “북한 은하수관현악단의 2010년 <설명절음악회> 공연 연구,” 『북한학 연구』, 6권 1호(2010), 205~22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하수관현악단의 2010년 &lt;설명절음악회&gt; 공연의 특징과 정책 함의 연구</li> </ul>
54	논문	2010	이소영, “해방 후 남북한의 혼종적 음악하기,” 『한국민요학』, 29집(2010), 301~374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 시기 서양음악, 일본음악 등의 외래음악의 영향을 받은 한국음악의 혼종성 연구</li> <li>· 민요 &lt;노들강변&gt;을 제재로 남북한으로 나누어 분석비교</li> </ul>
55	논문	2010	배인교, “북한의 민요식 노래와 민족장단,” 『우리 춤 연구』, 12집(2010), 147~180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풍의 노래 편 1』(평양: 예술교육출판사, 2000)의 민요식 노래를 제재로 장단의 변화를 시대에 따라 고찰</li> <li>· 1970년대 주체사상 확립 이후 3소박보다는 2소박, 흥겨우면서도 유순한 장단 사용 주장</li> </ul>
56	논문	2010	배인교, “박연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와 평가,” 『한국음악 연구』, 48집(2010), 217~23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연에 대한 북한의 연구 성과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핌</li> <li>· 북한 음악사에서 박연이 갖는 위치 조명</li> </ul>
57	논문	2010	최영애, “북한 음악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169~193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음악의 기본을 사회주의의 사실주의로 보며 이것이 김일성 찬양과 연결된다는 점을 주장</li> </ul>
58	논문	2010	김지연, “북한자료센터 소장 음반 목록,” 『한국음반학』, 20호(2010), 277~307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카트리지, 릴 테이프, 엘피(LP), 카세트테이프의 목록</li> </ul>
59	논문	2010	박균열·성현영·양희천,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 『통일전략』, 10권 3호(2010), 145~180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련 군정기와 직후의 학교음악 교육 연구</li> <li>· 소련과 공산주의 교육 영향 연구</li> </ul>
60	논문	2010	배인교, “북한 음악의 유형분류와 체계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63~9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음악의 분류체계를 남한의 기존 연구와 함께 고찰</li> </ul>
61	논문	2010	이현주, “<꽃 피는 처녀>의 음악적 특성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93~12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명가극 &lt;꽃 피는 처녀&gt;의 내용과 함께 음악분석</li> <li>· 음악적 측면의 성공 요인 정리</li> </ul>
62	논문	2010	천현식,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김정훈련: ‘집단주의’와 ‘지도와 대중’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3권 3호(2010), 201~240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유일체제를 유지하는 원리의 하나로 문학예술, 특히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통한 ‘김정훈련’에 대해 논함</li> <li>·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공적 교육에서 이뤄지는 교육보다 효과적으로 새로운 인간형, 즉 ‘집단주</li> </ul>

				의'를 실현하면서도 '지도와 대중'의 관계를 체득하고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기술
63	논문	2010	김지연, “북한자료센터 소장 CD음반 목록,” 『한국음악사학보』, 45집(2010), 435~466쪽.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씨디(CD)의 목록
64	논문	2010	노동은, “북한의 전통음악론,” 『한국근대음악사론』(과주: 한국학술정보, 2010), 207~248쪽.	·전통음악의 개념과 함께 음악요소 서술
65	논문	2010	배인교, “북한 초기 음악계의 동향과 교성곡 <압록강>,” 남북문화예술연구회, 『북한 문학예술의 지형도 3: 해방기 북한 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서울: 역락, 2012), 317~349쪽.	·해방기 음악 상황과 함께 당시를 배경으로 1949년에 창작된 김옥성의 교성곡 <압록강>의 평가변화 고찰
66	논문	2011	임경화, “북한 노래의 탄생: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인민가요 성립 고찰,” 『북한연구학회보』, 15권 2호(2011), 327~352쪽.	·해방 이후 1950년까지 노래 중심의 북한 음악정책 연구 ·정부 중심의 음악정책과 함께 인제군 사례 연구 ·북한의 민족문화 형성의 초기 시기로 중요함을 주장
67	논문	2011	노동은, “북한 민족관현악, 그 소통과 혁신,” 『음악과문화』, 24호(2011), 5~45쪽.	·북한의 민족관현악이 민족음악 건설에서 대중과의 소통과 혁신을 가져왔음을 주장
68	논문	2011	이수원, “북한 음악을 통해 본 경제발전 전략: 김정은 공식등장 이후 김정일이 관람한 공연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36집 1호(2011), 177~212쪽.	·김정은 등장 이후 김정일 공식관람 공연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찰
69	논문	2011	배인교, “북한 음악과 민족음악: 김정일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8호(2011), 39~73쪽.	·김정일의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을 중심으로 북한의 민족음악 고찰 ·민족음악이 적용된 노래들을 분석

주: 분류: ‘성과’→기존 연구, ‘단행’→단행본, ‘논문’→일반논문, ‘학위’→박사학위논문

## A Study of North Korea music research

Cheon, Hyeon-sik(Chung-Ang University)

Studies on North Korean music started around the late 1970s and have continued since. The history of North Korean music research may be divided into three distinct periods. The beginning of the first period coincides with the North and South each establishing separate governments in 1948 to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ifted the ban on distributing or listening of Sou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d musicians in October 27, 1988. The second period is from the lifting of the ban to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2000, and lastly, the third period continuing into the present day.

Despite 1948 being the start of the first period, research on North Korea was nearly non-existent due to the division that drew the Korean peninsula into a bitter cold war. It was not until 1978 that studies on North Korean music began to appear. Heavy bans on musical works of South Korean defectors and abductees were lifted in 1988, following Korea's democratization. This marks the start of the second period,

where the public was allowed to conduct independent studies o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 true beginning of North Korean music research. Studies mainly focused on introducing or providing commentary on North Korean music. Since the third period, after the 2000 Inter-Korean Summit, interest from both the public and academia greatly increased, prompting full-fledged research efforts on North Korean music. During this time, there has been an influx of academic papers being published, and the scope of research was widened to includ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fields, with diverse and in-depth research topics being explored.

Analysis of past research on North Korean music categorized by topic revealed that throughout the history of research on North Korea's music, the largest bodies of work were on North Korean musicology explaining Minjok Eumak (music of the people) and Juche Eumak (Juche music) in relation to North Korea's political idea. The second most-studied area was on North Korea's traditional music. Recently, analyses of individual musical pieces are starting to appear as research on North Korean music expands and advances. In-depth analyses of music pieces indicate the growing interest surrounding research on North Korean music.

In conclusion, research on North Korea's music should focus on two main aspects to produce meaningful research outcomes. First of all, in-depth musicological analysis of individual music pieces should be pursued. Secondly, the studies should move beyond simply understanding North Korea's music, but should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South Korea's music scene, examining its implications and how South Koreans should critique North Korean music within the context of South Korea's music scene. These research are significant in that its value transcends South Korea's music scene as a crucial process in preparing South Korea for a new Minjok Eumak and Unification Music.

Keywords: past research, national legacy, Minjok Eumak, Baehap orchestra, North Korean music, ideology, musical instrument modification, artistry, musicology, musical piece analysis, traditional music, Juche vocalization, Juche Idea, Juche Music, Unification Music